



(주)에코엔드림 신공장 준공식

이차전지 소재 기업 (주)에코엔드림 새만금캠퍼스 준공식에 (주)에코엔드림 대표이사를 비롯 김중훈 도 경제부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도의회 의장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6면)

<사진=전북도>

도, 청년유출 대응 총력...종합대책 추진

전북 성장동력 확보 위한 청년유출·입 대응 TF 첫 회의 개최
도-전북연구원-유관기관과 함께 청년유출·입 대응 방안 모색
좋은 일자리·주거, 문화복지, 청년참여 등 핵심과제 적극 논의

전북자치도가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일 자리부터 주거, 문화에 이르기까지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 청년층(18~39세)은 2024년 기준 38만 5,523명으로, 전체 인구의 22.2%를 차지하지만 최근 3년간 평균 약 1만3천명씩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청년 인구 전입은 2만6천 844명, 전출이 3만5천322명으로, 순유출 인원만 8천47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심각한 감소세에 따라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는 이에 따라 11일 '가칭 청년 유출·입 대응 전담팀(TF)' Kick-off(Kick-off) 회의를 갖고

청년 유출을 차단하고, 청년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도는 청년유출·입 대응 TF를 구성하고 전북 연구원과 경제통상진흥원 등 유관기관, 도내 23개 부서와 협력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 및 추진기로 했다. TF는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복지, 참여·권리 등 6개 분과로 운영되며, 청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심 분야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TF는 우선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내집 마련 지원 ▲문화·복지 향상 ▲청년 참여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산대 이국용 교수가 청년 유출 원인 분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언했으며, 전북연구원은 좋은 일자리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 계획이 논의되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이 구체화됐다.

도는 앞으로 TF를 중심으로 각 분과별 연구와 정책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와 포럼을 운영하고, 청년 정책 참여단과 협력해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2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확정 후,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 실질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예정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은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청년들이 전북에 정착하고 더 나아가 외부 인재도 유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도, 중소기업 규제혁신 속도...중기옴부즈만과 업무협약

지방·중앙 협력 규제혁신 본격화...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
경제 활성화 도모 규제 개선...도내 기업 성장환경 조성

전북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1일 전북도청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전북도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규제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및 발굴 ▲규제 해소 홍보 및 협업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적 정부기관으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립적 중재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함께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도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규제컨설팅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약 체결 후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

중훈 경제부지사,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해 도내 중소기업 대표,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전북 속박시설 도로 경계 이격거리 완화 ▲새만금 공유수면 부지사용료 이종부와 개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완화 등 10개 규제 개선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펫푸드 업종 제한 해제 등 전북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들도 논의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도, 국가유산 보존 안전·체계적 관리시스템 강화

총 535억 투입, 298개소 보수·정비, 전년 대비 43억 증액
문화유산 돌봄사업 확대, 예·예방적 유지관리로 효율성 제고

전북자치도가 올해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총 사업비 5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98개소의 국가유산을 보수·정비할 계획으로, 국가유산 보존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방지시설 구축, 안전경비원 배치, 문화유산 돌봄사업 확대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확정을 마쳤으며, 특히 보수가 시급한 국가유산을 우선 정비해 빠르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국가 지정 및 도 지정 문화유산의 정비 필요성을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

을 거쳐 국가지정 149개소(334억 원), 도지정 149개소(120억 원)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재난안전과 보존을 위한 선제적 예방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전년 대비 43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정비, 완주 송광사 종루 해체보수 등 국가지정 문화유산 149개소와 전주 삼경사 대웅전 사후 전기설비 정비, 부안 부설전 주변 석축 정비 등 도지정 문화유산 149개소가 주요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수리사

업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설계 승인 절차를 간소화·공사 기간 단축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도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난방지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 안전경비원 배치, 문화유산 돌봄사업 등을 병행 추진한다. 올해는 재난방지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에 28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 취약 국가유산 55개소에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안전경비원을 배치하고, 중요문화유산 특별관리반을 운영해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문화유산 돌봄사업에 27억여 원을 투입해 2개 돌봄센터에서 770개소의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환경정비와 유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김성수 도의원, “道 금고 운영 방식 개선 필요” 촉구

전국 유일 1금고 일반회계만 운영…1·2금고 간 평잔 불균형…“특별회계 또는 기금, 1금고로 이관 검토해야”

전북자치도의회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창)은 전북자치도의 금고 운영 방식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금고에서 일반회계만 운영하고 2금고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을 담당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농협은행을 1금고로 지정해 일반회계를 운영하고, 전북은행을 2금고로 지정해 특별회계 및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타 시·도의 경우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나 기금까지도 1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

북도처럼 금고를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1금고와 2금고 간 평균 잔액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인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금고 평잔액은 약 3천777억원, 2금고 평잔액은 6천889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 가운데 심한 경우엔 4배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도 협력사업비는 총 108억원으로, 이 중 농협은행(1금고)이 75억원, 전북은행(2금고)이 33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회계 및 기금이 2금고로 집중되면서, 실질적

으로 더 많은 협력사업비를 부담하는 1금고보다 2금고가 더 큰 금융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1금고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금고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1금고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운영하거나 일반회계와 기금을 통합 관리하며 협력사업비의 활용 극대화와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전북자치도는 특별회계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안전관리강화추진 도·시군 식약품 안전관리 실무자와 협력체계 구축 논의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전경식)은 11일 도 및 시군 식약품 안전관리 실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변화하는 식품 소비 경향을 반영한 선제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다빈도 식품 유형 정보를 공유하며, 수거 의뢰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인터넷 쇼핑물, SNS 등 비대면 유통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온라인과 SNS를 통한 식품 유통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비대면 유통 식품의 수거 절차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경식 원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식약품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해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백년포럼29강, 전북을 ‘K-지식문화수도’로 구축해야

“관련 자원·기관 전북에 풍부해 글로벌 전략학 최적지…글로벌 가치 재발견 및 역할 강화하는 일 중요”

전북도내 향토지식재산을 적극 발굴, 육성하는 글로벌 전략을 통해 전북을 ‘한국을 선도하는 K-지식문화수도’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11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향토지식재산의 새로운 글로벌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29강을 개최했다.

강연자로 나선 지식공유상생네트워크의 황종환 이사장은 “저성장, 고령화, 지역소멸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핵심자원으로서 향토지식재산의 글로벌 가치를 재발견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향토지식재산은 현대의 개별 기술, 디자인, 저작창작물과는 달리, 이미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자연소재, 지식, 기술, 명절, 문화로서 구현된 지식유산으로서 별도의 R&D나 창작행위가 수반되지 않기에 최소의 노력과 시간으로 지



전북연구원은 11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향토지식재산의 새로운 글로벌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29강을 개최했다.

원 아시아 청년문화(철원철석) 세계화 이사장인 김제세 이사장은 “전북연구원 역시 기초 지자체 연구 지원을 통해 각 지역 향토 지식재산의 발굴과 육성,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 기자

전북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

전북자치도가 대기환경 개선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생활 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 ▲소규모 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사업 ▲도로주변 미세먼지 저감사업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올해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폭넓게 보급해 질소산화물 및 이산화탄

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인증 LNG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가구당 최대 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난해 1천57대에서 올해는 1천540대로 확대 보급한다.

또한, 소규모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 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는 전주, 군산, 익산, 순창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3대와 친환경 위터클리닝 공법 4개소를 보급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현장 의정활동 전개

전북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지난 10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 경주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및 방제 현장을 방문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크기 1mm 내외의 실 같은 선충이 소나무 내부에서 빠르게 증식하면서 수분과 양분 이동을 막아 나무를 고사시키는 치명적인 병이다.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하며 전국적으로 피해 규모가 큰 5개 극심 지역이 전체 피

해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현재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지만, 인접한 경북 지역에서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승식 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서 선제적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예찰과 맞춤형 방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관 기자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JS1 22개, JS2 45개, JS3 4개사 선정...13일 전주 더메이호텔서 사업 설명회 열어 신청 등 제반 절차 안내
올해 삼성전자와 협력 강화...환경·재해예방 컨설팅 새 도입, 인력양성 교육도 진행

전북자치도가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촉진할 '2025년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내달 1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과 제조혁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지원 유형을 조정했다.

특히, 지난해 최대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JS2(기초 이상) 단계는 올해 사전 수요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42%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맞춰 모집 규모를 확대했다.

이에따라 ▲JS1(기초 수준) 22개사 ▲JS2(기초 이상) 45개사 ▲JS3(중간 이상) 4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에 앞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경제통상진흥원, 신산업보증단, 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과 함께 오는 13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전북자치도가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촉진할 2025년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내달 18일까지 모집한다.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2025년 사업 공고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 ▲사업 절차 및 신청 방법 설명이 이뤄지며, 자금·기술·HACCP 인증 상담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기존의 전문기술 지원과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환경·재해예방 전문가 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준호 기자

전북자치도, 물가안정 대책회의 개최...가계 부담 완화 총력

공공요금 동결 원칙·착한가격업소 확대 및 지원금 증액 추진 등 근절 대책 마련...실질적 대응책 추진

전북자치도가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한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군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도·시군 물가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지역 경제동향 및 물가전망을 발표하고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 방안 ▲착한 가격업소 확대 운영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등이 논의됐다.

도는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국 평균요금과 비교해 인상폭을 낮추거나 인상 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 결정 시 원가 분석 용역을 거쳐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전북자치도는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한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군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인상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 대책으로 현재 414개소인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489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기존 85만 원이던 지원금을 110만 원으로 증액하고 시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공모 신속추진을 요청했다.

관광객이 몰리는 축제·행사 기간에 일부 업소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부당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재영 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누적된 고물가로 인한 체감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새만금개발청, 한국수자원공사와 새만금 개발 업무협약 체결

기후변화 재해 예방·친환경 도시 개발·통합 물 관리 계획 수립 등 기술·인력 교류 협력...조력발전·수상교통 등 협력 사업 발굴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1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기후변화 등 극한 강우에 대비한 물 재해 예방과 조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 도시 개발 등의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통해 새만금 사업과 유사한 사회지구 개발사업 등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사업 관련 기술·인력 교류, ▲친환경 도시, 수상교통 및 관광레저, 조력 등 신재



생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발굴과 사업화, ▲수질개선 및 물 재해 예방 등 통합 물 관리 계획 수립, ▲새만

금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한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력발전, 수상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임팩트(사회 가치) 있는 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기본계획과 신산업 정책, 기반시설 등을 담당하는 일선 부서들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신성장전략, 기후탄소, 수변 및 물 환경 등 새만금 사업과 관련 있는 부서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해 새만금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약 이후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력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 계획을 모색하는 등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준호 기자

도, 올림픽 유치 열기 모아 31일까지 '전북 고향사랑 기부 이벤트' 진행

10만 원 이상 기부자 추가 혜택...맛집 식사권·특산품 증정

전북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을 기념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북 고향사랑 기부 이벤트'를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대상자는 도청에 10만원 이

상 기부한 도민이며,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 및 담례품까지 신청 완료 시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총 48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당첨자에게는 ▲전북 유명 맛집 식사권(백년가게 13개 업체) ▲친환경 돌출 ▲김부각 등 다양한 전북 특산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4월 3일에 발표된

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과 관광상품 등의 담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www.ilovegohyang.go.kr), 은행권앱(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 액티브키

(놀고팜)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NH농협, 축협 대면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을 기념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해 전북의 미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도, '찾아가는 소비자정보 전시회' 운영

공정무역·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위해 기획...도청서 제품 전시

전북자치도는 한국소비자원,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와 함께 오는 15일 '세계소비자 권리의 날'을 기념,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도청 1층 로비에서 '슬기로운 소비생활, 찾아가는 소비자정보 전시회'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알리고,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소비자 피해 예방 정보, 상품 비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홍보, 공정무역 및 친환경 제품 전시 등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며, 도민들의 소비자 역량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세계소비자 권리의 날'은 1962년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소비자 4대 권리(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선언한 것을 기념해 제정됐으며,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이를 기념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소비자 권리 및 책임, 소비자 피해사례와 예방 방

법, 윤리적 소비 실천을 위한 공정무역 제품 및 친환경 제품 전시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해 공식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도내 CCM 인증 기업은 단 2곳으로 전국(236개사)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전시회를 통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도내 기업들에게도 CCM 제도의 필요성과 인증 절차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CCM 인증 기업 확대를 유도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소비자 보호와 권익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소비자들이 현명하고 책임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

/김은지 기자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지역사랑성금 지원사업 공모

총 지원규모 6000만원 상당...기관 당 최대 400만원 지원



상당의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는 지역복지, 문화·예술·스포츠, 일자리창출, 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분야와 시설·단체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능보강 분야로 나뉘며, 기관 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각 분야 동시신청은 불가하고, 차량지원은 제외된다.

신청대상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시설·단체, 공익목적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등이며, 전북은행을 홍보하고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특별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및 소득증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우편 또는 전북은행 본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문의는 전북은행 사회공헌홍보부(063-250-7154/7346)로 하면 된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실시해 높은 참여와 큰 호응을 얻었던 공모사업을 올해 더욱 확대했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적십자 전북, 제1차 상임위원회...신임 위원 선임증 전달



임위원(이기운, 이연희, 정진)에 대한 선임증 전달도 있었다.

의장을 맡은 방극성 부회장은 인사발에서 지난해 적십자 운동에 참여해 주신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변엔 여전히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 도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사 상임위원회는 회장 포함 19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및 정관에 따라 지사 임·위원의 선출, 예산 및 결산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최준호 기자

도교육청, 내년 13개교 통폐합…인구 감소 ‘후폭풍’

“작은 학교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 위해 통폐합 불가피… 학부모·지역 사회 자발적 통합 추진할 것”

인구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전북지역 학교 통폐합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1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8개교 통폐합에 이어 내년도 13개교에 대한 통폐합을 잠정 결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 13개교는 전북교육청의 ‘통폐합 우선 검토’ 대상인, 전교생이 9명 이

하인 곳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1곳, 중학교가 2곳이다.

전북교육청은 전교생이 9명 이하인 초·중·고 31곳 가운데 1개 면 지역에 1개의 초등학교만 있거나 농촌유학을 운영하는 학교 등을 제외한 곳을 폐교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에 전교생이 2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1개 면 지역에 2개 이상 있는 경우도 포함했다.

전북교육청은 자발적인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폐교 대상이 정해짐에 따라 이달부터 해당 학교 학부모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폐교는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되며, 연말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들 학교가 모두 문을 닫게 되면 서거식 교육감 취임 이후 폐교 수는 2023

년 2곳, 2024년 10곳을 포함해 모두 33개로 늘게 된다.

이는 2015~2022년 5개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규모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작은 학교의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통폐합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최귀순 동문,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인생의 전환점이자 소중한 기억… 후배들 꿈에 작은 보탬 되고자”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역사콘텐츠학과 최귀순 동문이 발전기금 1억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1946년생인 최귀순 동문은 만학도의 길을 걸으며 2020학년도에 전주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에 입학해 학문에 대한 깊은 열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과 행사와 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보냈다.

작년에 졸업을 맞이한 최 동문은 “작년에 졸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바탕으로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귀순 동문은 “전주대학교에서

의 배움은 제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며 “교수님들과 학우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이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번 발전기금 기탁은 후배들이 더욱 풍요로운 학문적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앞으로도 전주대학교가 학문의 요람으로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학급당 학생수’ 20명 기준 저학년 전체로 확대

과밀학급 학교 학생 수 하향 조정… “학교생활 적응·학생교육·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올해 초등학교 3학년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으로 낮췄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초등 저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23학년도 초등 1학년을 시작으로 올해 초등 3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기준 20명 적용을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했다.

도내 학령인구 변화 추이와 교사 정원 감축 등을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기준을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전주만성초, 전주온빛초, 전주양현초의 학생 수 20명 기준을 지난해 1학

년에서 올해 1~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과밀학급이 많은 개발지구 학교에 대해서도 학생 수를 하향 조정했다.

전북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습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주 행정과장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적용은 초등 저학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생교육,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수 추이, 교원 수급 상황, 교실 여건 등을 다양하게 분석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행복한 교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교육청, ‘2025. 초등 교육과정 관련 주요 정책 설명회’ 개최

기초학력·학력신장·학교평가·학생평가 등 안내… 총괄평가 대상 초등 3학년까지 확대·전북형 CBT 평가시스템 도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1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2025. 초등 교육과정 관련 주요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초등 교육과정 관련 정책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 개선과 공감대 확산을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초등학교장 400여 명과 업무 담당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 설명회는 1부에서는 기초학력, 학력신장 및 학교평가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기초학력 정책으로는 ▲1수업 2교사 제 협력수업 ▲두드림학교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교과보충 프로그램 ▲학습지원 튜터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안내했다.

2부에서는 초등 교육과정, 수업, 학생평가에 대한 안내와 구체적인 사례 공유가 이뤄졌다. 특히 학생평가와 관련해 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을 소개했다.

전북교육청은 총괄평가 대상 학년을 초등 3학년까지 확대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형 CBT 평가시스템을 도입

해 다양한 문제 유형을 활용한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학생평가를 지원한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 교육력 제고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청렴으로 활짝 피자데이’ 소통 시간 가져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내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직원들이 청렴 조직 문화 조성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1일 부서 직원들의 소통과 공감을 돕기 위한 ‘청렴으로 활짝 피자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청렴으로 활짝 피자데이는 업무에 지친 직원들이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행사를 통해 직원들 간 공감의 장이 넓혀진 것은 물론, 조직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팀워크 강화에도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를 대상으로 퀴즈 이벤트를 실시하고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등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갑질 근절 및 청렴 실천 서약 행사’ 진행…청렴 캠퍼스 조성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대학 내 갑질 행위 근절과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0일과 11일 ‘갑질 근절 및 청렴 실천 서약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총장을 비롯해 학무위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대학 구성원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일과 11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된 행사에서는 이준화 연구부총장과 최기혁 총무과장 등이 ‘갑질 근절 및 청렴 실천 선언문’을 낭독했고, 참석자들은 서약서 작성을 통해 청렴한 대학 문화 조성을 약속하고 다짐했다.

전북대는 선언문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할 것, ▲우월

적 지위와 권한 남용 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기관 이기주의 방지 등의 실천을 다짐했다. 이어진 청렴 서약에서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이해충돌 방지, ▲부패 행위에 대한 엄중 처리 등을 약속했다.

전북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교직원들

이 일상 속에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갑질 관행을 근절해 건강한 대학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또한 정기적인 청렴교육과 캠페인,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대학 구성원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청렴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독



려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사고 없는 봄 산행을 위해

안전 수칙을 지켜 주세요!

산행전 날씨 확인등
필요한 정보수집



금지, 위험구역대신
지정권 등산로만 이용



구조요청시,
국가지번호 활용



산행에 필요한 장비, 옷
식량등 준비물 철저히

타박상, 긁힘등
사고대비 구급약 준비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무료 직업 교육과정 운영

익산시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 여성인력을 양성한다.

시는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장정남)와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해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재취업을 모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올해 직업교육은 총 7개 과정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총 13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상반기에는 ▲고부가가치 e커머스마켓터양성과정 ▲기업맞춤형 사회복지실무과정 ▲조리실무사양성과정 ▲인공지능(AI)응용 전산회계사무실무과정이 운영되며, 하반기에는 ▲디지털 AI 사무실무과정 ▲노인생활지원사과정 ▲창의코딩 강사 공동체 양성과정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직업교육훈련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 진행되며, 올해부터 교육생 특적으로 최대 40만 원의 훈련 촉진 수당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수료 후 새일인턴십, 관련 분야 취업연계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새일센터 누리집(www.iksanwomenwork.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853-5626)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군산시가 올해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앞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해당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업 운영에 바쁘고 어려운 시기를 피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이달 중에 법인에게 시기 선택제 안내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시 자체적으로 선정한 법인 44개 ▲도·시·군 합동 조사 법인 16개로 총 60곳이다. 도·시·군 합동 조사 법인의 경우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했다. 조사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실시하게 된다.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는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며, 기업이 알지 못한 세제지원(감면 등)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병행하여 진행할 방침이다.

장영호 세무과장은 "공정한 조사와 더불어 납세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기업활동을 지지하는 납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 접수...4월 30일까지

정읍시가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번 지원사업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일반 농가와 친환경 농가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임업인, 법인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원금은 친환경 인증 단계와 품목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1ha당 57만원~140만원,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은 38만원~120만원,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은 50만원~14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면적은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은 농가당 최대 30ha,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은 최대 5ha까지 가능하다.

/정읍=김정인 기자

(주)에코앤드림 전구체 공장 준공식 개최

군산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최초 전구체 생산공장 시대 열려

이차전지 소재 기업 (주)에코앤드림이 군산 새만금국가산업단지 1공구에 전구체 생산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11일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국내 굴지의 기업대표, 관계 기관, 회사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공장 투어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에코앤드림은 2004년 설립된 이차전지 전구체 및 환경측매 전문기업으로 특히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전구체' 기술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전구체'는 양극재 전 단계인 전구체에서 니켈의 함량을 80% 이상으로 크게 높여 에너지 밀도와 출력을 높인 것으로 주로 고급 배터리용으로 쓰인다.



(주)에코앤드림이 군산 새만금국가산업단지 1공구에 전구체 생산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에코앤드림은 이번 새만금 공장 준공으로 연간 3만 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 설비 시설을 구축했다. 기존 청주공장의 5천 톤 생산 규모를 합치면 총 3만 5천 톤의 전구체 생산능력을 확보한 셈이다.

(주)에코앤드림은 2030년까지 전구체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취업 포기 청년에 희망 전한다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선정...‘작당모합’참여자 모집·프로그램 과정별 참여수당 지급

정읍시가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5억 8860만원(국비 5억 1660만원, 시비 7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취업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시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공식 명칭은 '작당모합(작지만 당당하게 모여 힘을 내자)'으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취업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6개월 이상 취업과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세~45세 청년으로,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이 포함된다.

총 120명을 모집하며, 참여 기간에 따라 단기(5주 이상) 30명, 중기(15주 이상) 60명, 장기(25주 이상) 30명 등으로 나뉜다. 참여자에게는 과정별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발작 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과정과 함께 ▲정읍 도심투어 ▲목공예 체험 등 외부 연계·자율활동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도래 지원단'을 운영해 기존 참가자와 신규 참여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프로그램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재 1기 참여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청년도전지원센터(063-536-0333)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전북 유일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 선정

'백제왕궁 : 공동체의 연결, 미래를 비추는 유산' 프로그램 기획... 오는 5월 한 달간 진행

익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 교육부 공모에 선정됐다.

익산시 백제왕궁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뮤지엄x즐거다'를 통해 오는 5월 한 달 동안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박물관·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매년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공모해 지원한다. 박물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비 1,5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공모 주제는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다. 백제왕궁박물관은 '백제왕궁 : 공동체의 연결, 미래를 비추는 유산'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5월 한 달간 백제왕궁박물관 및 왕궁리유적 일원에서 진행된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물관은 백제왕궁(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백제 역사를 활용한 3종의 체험 프로그램을 총 6회 운영하며,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



성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과 참여 방법은 백제왕궁박물관 누리집(iksan.go.kr/wg)에서 확인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확대 추진

벼 친환경 재배단지 약제·방제비 지원... 농가 경영비 부담 감소·군산 쌀 고품질 이미지 구축

군산시가 군산 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5년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친환경 약제를 사용한 '환경친화형 병해충 지원방제'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감소 ▲군산 쌀의 고품질 이미지 구축으로 향후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진행한 사업은 2023년까지는 벼 친환경 재배단지(10ha 이상) 및 인근 관행 벼 생산단지 1,806ha에 친환경 방제 약제 및 방제비를 지원했다.

이에 2024년에는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벼 친환경 재배단지 및 시범단지(옥산, 서수)를 추가한 총 1,759ha에 친환경 방제 약제 지원과 병해충 저기 방제를 2회 실시했다. 작년 이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벼멸구 등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전년보다 약 8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5억 9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 방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 추진 면적은 벼 친환경 재배단지와 옥산, 서수, 나포, 성산, 옥구, 옥서지역 등 총 6개 시범지역을 포함해 총면적 4,535ha이다.

방제 약제 지원단가는 1회 방제기준 ha당 17만 5천 원 한도로 2회 방제분 약제비를 지원하며 방제 비용은 농가 부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에 신청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 홀로그램 체험

석재 산업·홀로그램 기술 접목한 창의 체험 프로그램 제공

익산시가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

익산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에서 석재 산업과 홀로그램 기술을 결합한 직업 진로·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학생들은 석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직업 세계를 탐색하고,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신비로운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다.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의 홀로그램 체험관인 '스톤앤스토리

(STONE&STORY)'는 익산석으로 만든 건축물을 홀로그램 기술로 구현한 공간이다. 학생들은 전통적인 석재 산업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전문 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진행된다. 전시 관람과 익산석을 이용한 소원석 꾸미기, 홀로그램 체험, 아와 정원 및 석공예품 관람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자세한 문의는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063-859-5599, 5597)으로 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현장중심행정박차...주요사업성과창출가속화

'현장 속으로 시즌2' 운영...주요사업장 직접 점검·현장 목소리 반영

정읍시가 '현장 속으로 시즌2'를 운영하며 주요 사업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을 강화한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10일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올해 준공 예정이거나 시민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점검한 사업장은 ▲기적의 놀이터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 센터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등 총 4곳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기적의 놀이터'에서는 "잔디광장을 성토해 아이들이 놀이터 전 구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에서는 "안전한 진일로 개설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현장 속으로 시즌2'를 지속 운영하며,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주요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해빙기 공공 건설현장 일제 안전점검 실시

군산시가 해빙기를 맞아 군산시가 발주하여 진행 중인 공공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점검 장소는 터파기 공사, 대형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건설 현장 22곳이었으며, 점검단은 동절기 동안 공사가 중지된 건설 현장에서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살폈다. 또한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도 동시에 점검하였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공사 투명성 확보 및 건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공사실명제 이행 ▲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 ▲절개 사면 및 법면 유실 방지를 위한 녹생토 등 보호시설 신속 설치 및 보완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임시포장 표기와 부직포 설치 ▲작업자 안전을 위한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표지 설치 등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제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현장은 해빙기에 빈발하는 ▲굴착면 및 지반 붕괴 사고 ▲맨홀 등 밀폐된 공간 작업 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관련 철저한 대비와 주의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안전한통화로조성...익산시,불법광고물 집중정비

익산시가 안전한 통화로 확보와 쾌적한 학교 주변 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는 초등학교 통학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에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익산시와 익산시민경찰연합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이달까지 실시된다.

합동 정비단은 지난 7일부터 마한초등학교, 백제초등학교 등 영동·여양동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을 철거했다. 오는 24일에는 모현초등학교, 가운초등학교 등 서부권 5개 초등학교 주변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 익산시민경찰연합회와 함께 권역별로 순차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중점 정비대상은 ▲음란·퇴폐·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 ▲동별 2개 이상 설치 기준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추락 위험 간판 등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비뿐만 아니라 평일에는 순찰 차량을 활용해 매일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말에도 휴일반을 편성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힘쓰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춘향제, ‘백종원 먹거리’로 흥행 겨냥

남원시, 백종원 대표와 축제-먹거리 연계 관광상품 공동 개발
‘백종원 테마 거리’ 조성…광한루원 주변 상가 및 전통시장-청년물 활성화 지원

남원시가 지난해 제94회 춘향제에서 착한 먹거리 개발로 130만 인분의 음식을 팔아 117만명 방문객을 이끈 흥행보 증수표 백종원 대표와 함께 올해도 제95회 춘향제 등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4월 남원시(시장 최경식)와 더본 코리아(대표 백종원)가 체결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백종원 대표는 올해도 제95회 춘향제에 참여해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는 흥행 불패 성공 신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먼저 남원시와 백종원 대표는 올해 제95회 춘향제 200만명 유치 목표로 축제와 먹거리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 추진에 공동 협력한다. 앞서 백종원 대표는 지난 제94회 춘향제에서 품질 높은 다양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춘향제에 대한 신뢰도 뿐만 아니라 화제성까지 높여 전년 대비 3배의 방문객인 117만명이 다녀가게 하는 등 792억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제95회 춘향제에서 지난



남원시가 지난해 제 94회 춘향제에 117만명 방문객을 이끈 백종원 대표와 함께 올해도 제95회 춘향제의 ‘착한 먹거리’를 운영한다.

해 착한 가격과 검증된 맛으로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먹거리 부스를 더본존과 바베큐존으로 더욱 확대하고 지역 상인들에게 요리 노하우 전수 및 농특산물 먹거리 컨설팅 등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백 대표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 및 지역특산품 홍보, 전년대비 50%이상 신메뉴 개발 등 지역 특산물 활용 및 상권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백 대표는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대표 상권인 ‘경외상가’를 매력적이고 핫한 핵심 점포로 육성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현재 남원시가 광한루원 서측 도로인 광한서로를 ‘보행환경이 안전한 도로’로 탈바꿈시키는 만큼 향후 경외상가 주변 미식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백 대표와의 협업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전망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참두릅 여행·힐링마실 플로깅대회’ 개최

섬진강 일대 쓰레기 줍기 및 걷기 ‘플로깅대회’ 참가자 이달 31일까지 모집

순창군이 봄을 맞이해 오는 4월 19일에 열리는 ‘참두릅 여행·힐링마실 플로깅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견GO, 쥔GO, 건강하GO’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힐링마실 플로깅대회’는 걸으면서 섬진강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행사로 오는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플로깅대회는 순창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체계산 출렁다리에서 출발해 섬진강 자건거길을 따라 섬진강미술관까지 약 4km 구간을 따라 진행한다.

특히, 코스 내에는 보호수와 다양한 식생이 자리하고 있어 참가자들은 섬

진강변을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한 자연을 가꾸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아울러, 순창군은 참가자 전원에게 플로깅 키트와 기념품을 제공해 의미 있는 섬진강 정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플로깅을 마친 후에는 같은날 순창읍 양지천에서 열리는 ‘순창 참두릅여행 축제’에 참여해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이어갈 수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참두릅여행 축제는 순창의 대표 봄나물인 참두릅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 신청을 한 참가자들은 일정 비용을 자부담해 고추장 만들기 체험, 도자기 만들기 체험,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순창을 방문하는 20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200명을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이달 31일까지 순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플로깅(Plogging)’은 ‘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과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기업애로해소단 발대…‘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기업 공모·마케팅·유통·기술 등 전문 컨설팅…기업 애로 청취·신속 해소 지원

완주군이 기업 성장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애로해소단을 발대했다.

11일 완주경제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 김용현 완주산단진흥회장, 배지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고용센터 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기업애로해소단은 전문 컨설턴트를 매칭해 멘토링을 통해 기업의 공모 및 지원사업, 자금, 마케팅, 유통, 경영진

략, 디자인 지원, 품질·공정관리, 상품과 및 기술 등을 지원한다.

1차로 50인 미만 제조업 20개 기업에 5회의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운영 실적 점진 후 보완해 60개 기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애로해소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기업애로해소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경제센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경제적 등 완주군 토발경제 브랜드 구축 등을 지원하고 완주물을 통해 완주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품들과 농산물을 홍보함으로써 기업과 농가의 매출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국토교통부, DFL실증도시 구축 사업 본격화

남원시가 국토교통부와 DFL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본격화한다.

남원시(시장 최경식)와 국토교통부는 11일,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 호텔에서 국내 드론 산업의 상용화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17개 지자체, 실증도시 구축사업 참여 대표 사업자 등과 함께해 항공안전기술원의 실증도시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주제로 협약식이 진행됐다.

시는 공모 선정으로 국비 11억 9천만

원을 확보하고 올해 드론 레저스포츠 DFL 국제대회개최 11억, K-드론 배송으로 특화된 공공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9천만원으로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드론 레저스포츠와 K-드론 배송 분야로 ▲드론 레저스포츠 육성을 위해 국토부에서 개발한 국산 드론 기체로 DFL을 고도화·국산화에 올해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제3회 남원국제드론대회를 통해 국토부장관배 DFL 드론 레이싱대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K-드론 배송은 남원시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지리산권 시내권 2개권역 공공

서비스를 실시한다.

남원시는 2023년 국비 14억 원을 확보해 드론통합관리 구축, 소방드론 자율주행 실증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2024년에는 국비 9억 원을 확보해 드론 배송 서비스 공간정보 구축, 드론 레이싱 기체 개발 등을 진행하며, 국제드론대전에서 실증 결과를 공개했다.

2025년에는 미래 드론인재육성 및 저변확대를 위해 자체 신규 사업으로 ‘시민참여형 드론 스포츠교육’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또한 교육의 결과물을 ‘드론스포츠 대회’ 개최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춘향제 홍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300개 작품 참여, 총 37작품 선정…총 상금 1000만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제95회 춘향제 홍보콘텐츠 및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10일 발표했다. 남원시가 주최하고 춘향제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95회 춘향제의 다양한 홍보 아이디어 모집하고자 지난달 28일까지 진행됐으며, 자유부문, 영상콘텐츠부문, 웹툰부문 등 3개 부문에서 총 300점의 공모작이 출품됐다.

시는 접수된 300개 작품을 지난 5일 남원시립 김병중 미술관에서 마케팅 및 축제 전문가 배석하에 2차례 심사를 거쳐 대상 1점과 최우수상 3점, 우수상 3점, 장려상

10점, 입선 20점 등 총 37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영예의 대상은 ‘소리로 전하는 춘향제’란 주제로 자유부문에 출품한 송지혜, 안혜원씨의 작품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작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축제 프로그램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실행방안, 홍보 및 모객이벤트 전략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춘향제 리브랜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대상 200만 원과 남원시장장,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과 춘향제전위원장상, 우수상에는 50만 원, 장려상에는 3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지급된다.

한편, 당선된 출품작은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열리는 ‘95회 춘향제’ 홍보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마을·시민텃밭 분양 14일까지 신청자 선착순 모집

완주군이 지역주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마을텃밭’과 ‘시민텃밭’을 분양한다.

11일 군은 농사 체험 및 채소를 직접 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 3개소의 텃밭을 조성해 14일까지 분양 신청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텃밭 1개소는 봉동읍 낙정마을에 마련됐으며, 도시민에게 분양하는 시민 텃밭 2개소는 ▲용진읍 두억마을 ▲이서면 대농마을에 조성됐다.

분양 규모는 세대당 33㎡(10평)으로 총 270가구이며 분양료는 마을텃밭은 2만 원, 시민텃밭은 3만 원(완주군민 2만 원)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원두막, 급수시설 등이 마련됐다.

마을 텃밭은 해당 읍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며, 시민텃밭은 완주군청 지역활력과 귀농귀촌팀(290-2472-4)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매달 어린이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콩’은 이달부터 12월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이하‘ACC재단’)과 함께 ACC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How Fun(하우펀) 예술놀이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와 ACC재단은 지난해 3월 콘텐츠 교류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How Fun 예술놀이터’ 프로그램 10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가족문화축제 How Fun mini (하우펀 미니) 등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 협력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ACC 어린이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19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남원시 관내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무료로 운영되며, 남원시 누리집에서 매월 10일 신청할 수 있다.

‘콩’은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과 마찬가지로 매주 월요일 휴관하며 운영료의는 전화 063-620-5716으로 가능하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비만예방관리교실’ 참여자 모집…이달 14일까지

순창군보건의료원이 오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비만예방관리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걷기 소모임 ‘워크온’과 전문 기구 필라테스를 활용해 비만 예방과 체중 관리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참가 대상은 관내 거주 성인 중 BMI(체질량 지수) 30 이상이거나 적정 체중 관리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다.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선착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인바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 건강검사를 사전에 받게 된다.

순창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비만은 단순한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는 만큼 생활습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걷기, 물 마시기, 나트륨·당·지방 줄이기’와 같은 건강한 습관이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063-650-52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주)나눔해와 손잡고 계절근로자 의류 지원

완주군이 의류기업 (주)나눔해(대표 박형규)와 11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복지를 위한 의류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따뜻한 나라에서 건너와 한국의 추운 겨울을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추진됐다. (주)나눔해에서는 계절근로자 입국시 정기적으로 농작업에 편리한 의류를 선별해 후원한다.

군에서는 후원받은 의류를 선별 및 크기를 구분에 근로자들이 입을 수

있도록 입국환영식에서 계절근로자들에게 전달한다. 올해는 500여 벌 정도가 될 예정이다.

박형규 (주)나눔해 대표는 “소의계층을 위해 의류(리사이클링)를 좀 더 의미 있게 쓸 방안을 생각하다가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나눔해는 완주군 소양면에 빈티지 구제 참고샵 ‘파스빈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안 입을 옷 약 1kg으로 가져오면 옷을 살 수 있는 쿠폰이나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고산면 이장단, 완주문화원 이진지 답사

이전 논란이 불거진 완주문화원과 관련해 고산면 이장들이 직접 현장 답사에 나섰다.

11일 완주군은 고산면 이장회의가 최근 완주문화원 이전 예정 장소인 전 전환기술센터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50여 명이 참석해 완주문화원 이전 예정 현장의 규모와 시설을 둘러보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새롭게 마련된 완주문화원은 지난해 10월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사무공간과 강의실이 갖춰졌다. 현재 책상과 의자 등 기본 가구가 비치됐다.

완주군 관계자는 “문화원 측에서 이전 장소가 창고 수준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었는데 고산면 이장회의를 통

해 오해가 불식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 복합문화지구에 완주문화재단, 완주문화도시센터, 한국예총 완주지회, 완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가 입주해 협력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회의에 참석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 복합문화지구를 중심으로 완주군이 제2의 문화 중흥기를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장회의에서는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 군민 안전보편 안내, 2035년 완주 군관리계획(재정비) 주민설명회 안내, 희망저축 계좌 신청 안내, 치매 조기검진사업 등 다양한 현안 사항이 전달됐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립도서관, 독서문화·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순창군립도서관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군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평생 학습 지원을 위해 ‘2025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돼 있으며, 독서습관 형성과 평생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딱딱딱딱 어린이 문화공작소 ▲판타스틱 도서관 여행 ▲힐링-컬러심리테라피 ▲생활영어(영어 첫걸음) ▲SI활용교육 ▲수채화교실 ▲캘리테라피 ▲건강

한 가족 공동체를 위한 부모코칭 ▲프랑스 자수 등 다채로운 활동이 준비돼 있다.

모집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선착순 마감 시까지이며, 유선 접수(063-650-5678, 종합자료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각 프로그램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나 일부 과정에서는 재료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생활영어(영어 첫걸음) ▲SI활용교육 ▲수채화교실 ▲캘리테라피 ▲건강

/순창=박지현 기자



전주이든치과, 위기가구 이웃 위한 성금 100만 원 기부

전주이든치과(원장 유승환)는 지난 11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도움이 필요한 전주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퇴거 위기에 놓인 미혼 모자 가정의 주거비지원 등 위기가구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로 2025년 전주시복지재단의 12번째 백만천사가 된 전주이든치과는 그동안 이웃사랑 성금 기탁과 물품(라면 100박스) 기부, 취약계층 치료비 지원 등 평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유승환 전주이든치과 원장은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전주이든치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남원시립청소년합창단, 김중희 신임 예술감독 임명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남원시립청소년합창단의 새로운 예술감독으로 김중희(1972년생)를 임명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김중희 신임 예술감독은 지난 10일부터 2년간 시립청소년합창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합창단을 이끌게 된다.

신임 예술감독은 순천시립예술단(합창단) 상임 단원으로 24년간 클래식 공연을 비롯한 오페라, 뮤지컬 등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경험을 쌓았으며, 남원시립청소년합창단 지휘자(19년)를 역임하면서 뛰어난 예술성과 기획 및 연출력을 발휘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번 임명은 시립청소년합창단이 남원 지역 뿐 아니라,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인근 지자체까지 아우르는 청소년 문화예술 거점의 역할과 더 나아가 남원시 문화예술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일환이다.

김중희 예술감독은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꿈을 키워가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라며, “더 많은 청소년이 합창단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과 협력의 가치를 배워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군산시 이승주 주무관, 감사패 전달받아

옥구읍 이장협의회, 지역 주민 위해 애쓴 공로 감사패 전달... 재해예방·배수로 및 도로 정비 등

전북 군산시 옥구읍 이승주 주무관이 옥구읍 이장협의회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애쓴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승주 주무관은 재직년부터 옥구읍에 근무하면서 재해예방 및 주민 불편을 위한 배수로 및 도로 정비, 재설 작업 등 옥구읍 주민들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장협의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힘든 자신들의 공로를 이승주 주무관에게 모두 돌리며 감사패를 전달해 더욱 훈



군산시 옥구읍 이승주 주무관이 옥구읍 이장협의회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애쓴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11일 전달식에 참석한 전

성호 옥구읍이장협의회장은 “비록 이승주 주무관에게만 감사패를 전달했지만, 옥구읍 주민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고생하는 옥구읍 모든 직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항상 감사하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승주 주무관은 “이장협의회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NH농협 무주군지부, ‘고향사랑 무주사랑’ 동참

임직원 모금 통해 2,390만 원 기탁... “무주군민들과 동고동락한다는 자부심으로 직원들 마음 모아 응원”

NH농협 무주군지부가 무주군에 고향사랑 기부금 2,39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NH농협 무주군지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2023년부터 매년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김범석 지부장은 “무주군민들과 동고동락한다는 자부심으로 직원들과 마음을 모아 무주발전과 군민 행

복을 응원하게 됐다”라며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해 7억 1천9백만 원의 모금 실적을 달성해 총 13억 4천 4백만 원의 기금을 모았다. 이를 기반으로 상반기 공모를 통해 지정 기부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기금사업 발굴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NH농협 무주군지부가 무주군에 고향사랑 기부금 2,390만 원을 기탁했다



익산이리북문교회, 교인들 함께 모아 장학금 기탁

신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리북문교회(담임목사 김종대)가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600만 원을 기탁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장학금은 이리북문교회 부스리기 나눔팀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함께 저금품을 모아 마련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5가구의 아동·청소년에게 학업 지원비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리북문교회는 매년 3월 장학금을 기탁하며 올해도 8년째 따뜻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김종대 담임목사는 “새 학기를 맞아 준비할 것이 많은 시기인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위축되지 않고 학업 시작을 하길 바란다”며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원광대병원, 뇌출혈 신생아 긴급수술로 생명구해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은 지난달 24일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의료진의 협업 수술을 통해 작은 생명을 구했다는 미담을 밝혔다.

지난달 22일 군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A군은 출생 직후 이상 증세를 보여 긴급히 원광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송 후 시행한 MRI 검사에서 신생아에게는 드물게 발생하는 뇌출혈을 진단했다.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은 즉각 신경외과, 소

아청소년과, 수술실 및 신생아중환자실 간호팀 등 다학제 의료진을 소집해 긴급 수술을 결정했다.

수술은 지난달 24일 저녁 7시부터 시작돼 밤 9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신경외과 김대원 교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술실 및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 등 의료진은 퇴근 시간을 잊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새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다행히 수술 직후 A군의 상태는 호전됐으며, 현재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퇴원을 앞두고 있다.

/김은지 기자

장수군 장계면, 밥퍼봉사대 사랑나눔 배식봉사

장수군 장계면 직원들로 구성된 밥퍼봉사대가 장계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에게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로식당은 장계 노인복지관 1층에 마련돼 어르신들 8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하게 밥 한 끼 나누는 곳이다.

밥퍼봉사대는 지난달부터 매주 월요일 전직원이 조를 편성해 근무시간 외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배식 및 청소 등을 돕고 있다.

경로급식에 참여한 장계면노인회 이철성 총무는 “바쁜 점심시간 배식 일손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면사무소 직원들이 순수 식판에 밥과 반찬을 담아 주며 어르신들에게 배식해 주는 모습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고 말했다.

조장호 면장은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면서 이웃과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러한 봉사활동들이 꾸준히 이어져 온기 가득한 장계면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정읍시 농소동 주민자치회,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

정읍시 농소동이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지난 10일, 농소동 주민자치회(회장 육석)와 농소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30명은 배영고등학교 일대 도로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주민자치회는 매년 봄이 되면 주민이 직접 나서 도로변과 인도를 정비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육석 주민자치회장은 “따뜻하고 행복한 농소동을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회가 항상 앞장 서겠다”며 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웃사랑 백미 전달식 개최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재동)는 지난 11일 마이산 탐사에서 ‘제13회 진안군 이웃사랑 백미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마이산탐사(주지스님 진성)는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10kg들이 백미 100포(총 1,000kg)를 자원봉사센터에 기탁했으며, 기탁된 백미는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전달됐다.

전달식에는 자원봉사센터 소속 10개 면 봉사단과 24개 결연 기관 및 단체에서 약 60명이 참석했다.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관내 기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우리 함께 해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회용컵,빨대 no!



텀블러, 다회용기 사용



비닐봉투no!장바구니ok!



세탁비닐no!



일회용 수저, 포크 no!

〈一事一言〉



윤석열 구속 취소, 참을 수 없는 불쾌함(1)

조수진
변호사

대한장파티입니다. 12·3 이후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구속을 위해 힘을 합쳐 싸웠습니다. 남태령에서, 한남동 대통령 공관 앞에서. 무자비하게 추웠던 밤에 내란법을 제포하라, 밤샘 집회를 이어가던 시민들을 보호해 준 것은 서로의 온기와 얹은 은박담요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담요 위로 곧 눈이 쌓였습니다.

수사기관들은 달랐습니다. 기관의 안위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공수처는 안일했던 공관 1차 진입에서 무기력하게 되돌아 나오며 '불상사를 최소화'하려 후퇴했다고 했습니다. 공문 한 장으로 체포 집행을 일임해 넘기려했고, 경찰은 범플렉 논란이 있다고 반발하며 반기를 거절했습니다. 공조없이 공수처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이 당연히 될 것이라 생각하다 법원이 거절하자 아슬아슬한 녹장 기소를 했습니다. 법원은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구속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대한장파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정치행위와 노동쟁의 금지, 언론출판 통제, 국회 해산, 선관위 서버 침탈 범죄를 계획해 착수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받지 않았고 마치 군림하는 존재처럼 유유히 공관으로 돌아가 경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이룬 성취가 패스트리처럼 겹겹이 이어진 공무원들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참담하게 무너진 것입니

다.

특히 담당 재판부의 구속취소 이유를 담은 보도자료를 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쾌함을 느낍니다. 인권을 꺾대기 삼아, 사실은 공수처 수사권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거면 재판부는 구속 취소 심리에서 자신들의 의도를 드러내고 공수처 수사권, 즉 영장 청구권에 대해 더 진지하게 심리하고 질문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는 재판부를 법원 공식용어로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라고 하고, 변호사들은 '변커가 뒤통수 때린다'고 합니다.

법원의 윤석열 2025초기619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보도자료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기간 계산법이고 다른 하나는 공수처의 수사권한입니다.

누군가를 구금하고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한다는 핑계로 장시간 불법 구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사기관은 반드시 열흘 안에 증거수집을 마치고 법원에 기소를 해야 하고, 그 안에 수사를 다 못 끝내면 풀어주고 불구속 수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그 열흘 중간에 피의자가 자신의 구금을 풀어달라는 재판을 신청하게 되면, 그 기간은 열흘 기간에서 빼주게 됩니다. 수사기관 탓에 시간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에서 구속실질 심사 기간을 열흘에서 어떻게 빼나 계산을 할 때 검찰은 일수로 계산해서 2일을 뺐고, 법원은 33

시간 7분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10시간의 차이가 생겼고, 열흘에서 10시간이 지나 기소했다고 보고 법원에서는 영장이 무효가 되었으니 풀어주라며 구속 취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법원 판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해석입니다. 법원은 보도자료에서 말합니다.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여 온 종래의 산정 방식이 타당하지 여부, 판단: 위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 2025초기619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중)

피의자 인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권적 해석론으로서 백번 맞는 말입니다. 평소였으면 박수를 치며 환영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쾌한 것일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유명한 '미란다 원칙'의 주인공 미란다도 사실은 악독한 사람이었다고요. 내란범에게는 인권 판결하지 말라는 소리냐고요. 1960년대 미국에서 변호인선임권과 묵비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자백을 해 버린 미란다 덕분에 그런 자백 증거는 무효가 되는 '미란다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니스트 미란다(Ernesto Miranda)는 재심

에서 그 자백 증거 없이도 납치와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악인이었고 징역형을 받았으며 출소 후에는 술집 싸움에서 칼에 찔려 사망하는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고 합니다. 절차적 권리의 발전은 때로 그냥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란다 사건과 윤석열 사건은 다르기에 이번 재판부의 해석론은 너무 뽕뽕맞습니다. 미란다 사건에서 미국경찰은 헌법에 하라고 되어 있는 고지 의무를 명백히 안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사건에서 검찰은 오히려 확립된 법원의 관행대로 기소했습니다. 게으를 수는 있으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새로운 해석론으로 이걸 엮어버린 겁니다. 사법 소극주의를 펴온 법원에서 이런 과감한 해석론은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재판부는 하필 내란죄를 범하고 극우 세력을 급부상시켜 사회 대혼란을 가져온 권력자에게 이 과격적인 인권적 해석론의 1호 수혜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 결정에 대해 반대하고 구속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말은 오히려 반인권적 주장이 되었습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윤석열 탄핵은 역사의 당위요 필연이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백척간두, 존망의 위기를 맞고 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풀려난 윤석열의 파면은 역사의 당위요, 필연이다. 광장에서 지켜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일순 야만의 시대로 추락하느냐, 문명의 세계로 나가느냐는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윤석열 탄핵은 정의와 헌법, 그리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다. 현재는 주저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윤석열 파면은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결단이며, 사필귀정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연말의 평온한 밤에 위험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공화국에 칼을 겨누는 주범이다. 명백한 내란행위가 자행됐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법치국가다. 만약 이러한 폭거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비상계엄은 일상화될 것이며 내란은 합법화될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언제든지 짓밟힐 수 있다는 무서운 선편을 남기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현재가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없다.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국정운영의 혼란과 무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미 검증된 무능과 독선의 인사들이 다시 권력의 전면에 등장할 것이다. 정신 나간 윤석열의 뒤를 이어 이들이 국정 전면에 다시 나타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무능과 혼돈의 지옥도로 빠져들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이런 무능한 리더십을 참아낼 수 없다. 윤석열과 그 측근들이 다시 국정을 장악한다면 국가는 혼란과 분열로 빠져들 것이며 이

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다.

특히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돼 윤석열이 용산으로 돌아오게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지난 석 달 동안 탄핵 반대를 외치며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극우 세력들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날뛸 것이다. 이들은 폭력을 선동하고 사회 갈등을 극대화해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을 것이다. 남북이 분단된 것도 모자라 남한마저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혼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해방 직후의 혼란보다 더 심각한 내전 상태, 중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무정부 상태에 대한민국의 펼쳐질 가능성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국가 경제는 회색 불가한 파탄으로 치닫고 국민 생활은 견딜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져들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윤석열 파면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윤석열 탄핵 인용은 헌법에 충실한 정의로운 결정이자 대한민국이 다시금 민주공화국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 이는 역사적·구조적·상황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다.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국민들은 현재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하루빨리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혼란과 분열을 멈추고 통합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 역사는 정의로운 결단을 기억할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문화재열전



재궁리 석등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적건조물, 불교, 석등
- 지정일 - 1976년 4월 2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김제시 월촌면 450-2번지

▲오늘의시

꽃가게 앞을 지나며 / 문병란

그 꽃빛갈만큼이나 예쁜 이름을 가진
운갓 꽃들이 진열된
꽃가게 앞을 지나면
사랑하는 사람아, 나는 문득
너의 이름이 떠오른다.

진정 그리움이란
진홍빛 장미꽃만큼이나

시인 약력 : 1935년 전남 화순 출생. 1961년 조선
대 국문과 졸업하고 '현대문학'에 시 '가로수', '밤

간절히 타오르는 정열인 것이냐.
아름다운 것만 보면 문득
푸른 하늘이 치어다 보이고
거기 눈부신 이국종
아네모네의 이름보다 멀게
너의 고운 미소 피었다 스러지나니.
삶의 외로움 나누는
목마른 어느 길목에서

의 호흡, '꽃밭' 등이 추천되어 등단했다. 1990년
만족작가회의 이사, 1996년 5·18기념재단 이사

나는 너의 조그만 미소를 구하여
이리도 간절히 발돋움해 애태운다.

오라, 노을지는 꽃길 위에
종종 걸음으로 왔다가 스러지는
무수한 발자국 지우며
봄과 함께 꽃내음 타고 올
제비꽃 초롱 내 사랑하는 연인!

등을 역임했고 '월탁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전남
문학상, 요산문학상, 금호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월간) 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타임스신문

당신의 하루를 여는 신뢰의 뉴-스,
전북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 5층 대표전화 063)282-9601 팩스 063)282-9604

김제시, 역대 최고 고용률 달성! 일자리정책 성과 빛나

전국 시·단위 고용률 3위! 취업자·상용근로자 수 지속 증가·2025년도 산업·사람 중심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역 고용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며 기업 유치 및 맞춤형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인정받았다.

지난달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지역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0.9%p 상승한 68.8%를 기록하고 통계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전국 시 단위 지역 중 3위를 차지하며 지역 고용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줬다.

김제시 고용률은 전국 평균(63.3%)과 전북 평균(64.8%)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특히 실업률은 1.1%로 전년동월 대비 0.6%p 감소해 전국적으로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역 내 기업 유치 및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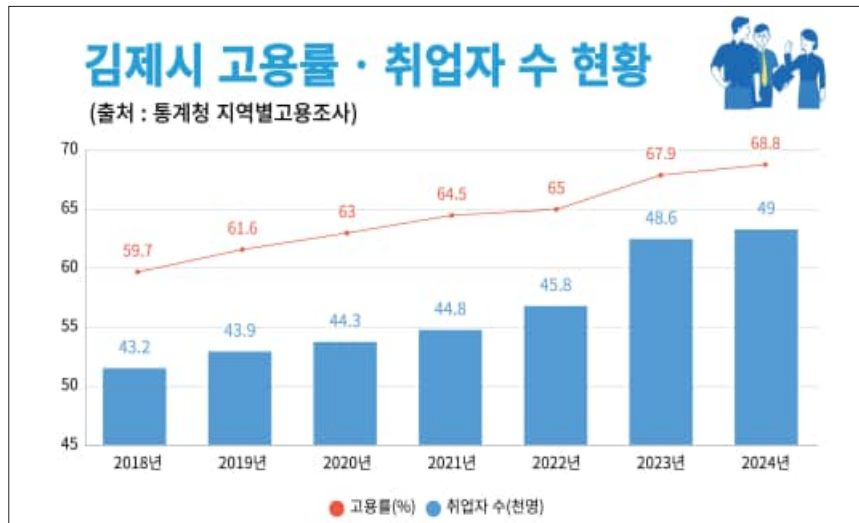
15세 이상 인구는 71,2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경제활동인구는 49,600명으로 0.4% 증가하면서 지역 내 경제활동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취업자 수는 49,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0.8%(400명)의 증가율을 보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21,700명으로 1.8%(400명)의 감소율을 보이며 구직활동 증가와 경제 활성화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전년동월 대비 1,200명(27.3%)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운수·금융업이 900명(31.0%) 증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200명(1.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의 지속적인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활성화와 정책,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공공일자리에 확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고용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 취업자 현황은 15~29세 청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은 각각 400명(6.7%p, 0.4%p)씩 증가했으며, 30~49세 취업자는 200명(1.0%p)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는 육아 및 가사 등의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지위별 취업자 현황은 임금근로자가 전년동월 대비 1,600명(6.6%) 증가했으며, 비임금근로자는 1,200명(4.9%)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상용직 근로자가 1,100명(8.0%) 증가하며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이 확대되었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시가 국내·외 경기침체와 저성장, 지역소멸 위기의 어려운 여



건 속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에 집중한 결과로 해석되며, 그간 시는 지역특화산업 집중육성 및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취업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 확대에도 힘써 왔다.

특히, 지난해 ▲전북 최대 규모 미래 모빌리티 산업 기호발전특구 지정('24년 6월) ▲지역 일자리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개소('24년 7월) ▲전북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공모 선정('24년 5월) ▲상공회의소 창립총회 개최('24년 12월) ▲청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등을 통해 지역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또, 시는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2024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1위를 차지해 일자리 공시제 부문 대상을 수상해 지역 일자리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통계조사 결과로 전국 시 단위 상위권 고용률을 유지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뒷받침되며 일자리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올해, 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산업과 사람 중심의 지역 맞춤형 고용 정책으로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신산업 중심의 산업 체질 개선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시는 기회발전특구 연계를 통한 산업 단지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특장 차car세대 성장 프로젝트' 추진,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신산업 중심의 산업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미래농업 전환을 통한 종자산업 육성
및 청년 농업인 지원

또한,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산업에 김제의 신성장 핵심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종자생명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특히, 청년후계농 육성과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젊은 인력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스마트 미래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이와 함께, 시는 청년·신중년·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전 연령층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일자리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김제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취업 상담·취업연계·직업 교육·고용장려금 지원·고용·고용처벌 3S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김제형 외국인 정책 수립, 외국인근로자 교육지원센터 조성 및 정착 지원,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이를 통해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더불어, 소비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별보증 이차보전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내 김제상공회의소 설립 추진을 통해 상공

인의 권익 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의 충추
적 역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장기간 지속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직면해 있지만, 앞으로로도 산업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지

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QR코드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올해

농지를 매도하셨나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받아가세요!

추가로

✓ 농업인 요건

- 약정체결일 기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지급대상농지

- 3년 이상 소유 중인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진흥지역 농지

✓ 지원내용

- ① **매도(분할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매월 50만원 지급
- ② **매도(일시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50만 × 지급기간 × 지급율
* 경작허용농지 1,000㎡ 미만일 경우만 가입 가능, 지급 기간별 최대 30% 차감
- ③ **[매도 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원 지급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 ①과 ②의 경우 경작 허용 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의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 후 지원

✓ 지급상한 면적

- 최대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매도*] 최대 월 200만원(4ha기준)

* 10년 기준 (분할지급) 240백만원, (일시지급) 168백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최대 월 160만원(4ha기준)

* 10년 기준(분할지급) 192백만원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가입 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 사업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 자세한 가입조건, 지급금액 등은 상담 후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문의 ☎

1577-7770